

자유로운 사랑의 법열과 그 비극을 온전히 책임지다: 엘로이즈

한 정숙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상투적인 것과 그 너머의 것

여기 정물화वाद도 같은 서양 중세 여성의 초상이 있다. 이른바 “암흑의 시대”라는 중세 전체의 분위기에다 여성 억압이 더해져 여성은 남성들에게 순종하며 숨도 못 쉬고 산 것처럼 생각하는 후대인의 고정관념이 만들어낸 창백하고 개성 없는 여인의 모습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서양 중세는 인간을 인간에게 종속시키는 위계서열의 사다리를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었고,¹⁾ 남성 뿐 아니라 여성도 이 같은 봉건적 질서 안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질서 안에서도 남녀관계는 명백한 상하관념에 따라 형성되었다. 서양 중세는 양성 관계에서 경직적인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 혁명”(Aristotelian Revolution)이 일어난 시기였다.²⁾ 이는 여성과 남성을 생물학적 요인에 따라 가르면서 여성은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열등하다고 여기는 견해이다. 모권제와 여신숭배전통의 기억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어서, 체계적이고 집요한 여성비하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지는 않았던 고대에 비해 중세에 들어오면서 부정적 여성관은 심화되었다. 그런데 중세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성애에 대한 기독교회의 부정적 견해, 즉 금욕주의적 태도와 결부되었다는 점이다. 성적 욕망을 극복해야 하는 으뜸가는 악덕으로 여긴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초기 그리스도 교회 교부들은 여성을 성적 유혹자요 남성을 타락케 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³⁾ 여성은 약하고 열등한 존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남성의 영적 구원에 방해가 되는 위험한 존재이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서양 중세는 성모 마리아 숭배가 시작된 시기이면서 여성 폄하의 이데올로기가 체계적으로 다듬어진 시기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범박하게 이야기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여성을 폄하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여성관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에 바탕을 두고 섹슈얼리티를 폄하하는 기독교회의 관점과 결합하여 양성관계와 성애에 대한 중세의 관념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서양 중세도 천 년 동안 양성의 사회적 관계와 성애 문제에서 천편일률적인 모습만을 보였던 것은 아니다. 특히 섹슈얼리티에 관한 구체적 표현에서는 시대별로 명백한 변화가 있었다. 중세 초기는 암흑의 시대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는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경직적인 사회분위기 속에 놓여 있어서 남녀간의 애정에 관해서도 신선한 표현을 찾

1) 마르크 블로크는 인적 종속관계의 연쇄를 중세 봉건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파악하였으며, 그의 책 *봉건사회 I* 은 전체가 이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마르크 블로크, *봉건사회 I*, 한 정숙 옮김(한길사, 2001)

2) 여성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혁명이라는 말은 미국 학자 프루던스 앨런이 처음 사용한 말이다. 그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가 파리 대학에서 필수 텍스트로 읽히면서 전 유럽에 그의 철학의 영향이 퍼져가게 됨으로써 그의 여성관이 그 후 몇 세기에 걸쳐 유럽의 여성관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앨런에 따르면 이 혁명은 1250년경에는 완료가 되었다. Prudence Allen, *The Concept of Woman. The Aristotelian Revolution, 750 B.C.- A.D. 1250*. 2-nd Ed. (Michigan/Cambridge U.K., 1997), pp. 4-5.

3)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 이전 상태의 인간에게는 남녀의 우열이나 차별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 *신국/고백*, 윤 성범 역 (을유문화사, 1993), 71-72쪽, 그러나 이 기독교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부는 현실계에서는 여성을 남성을 오도하는 존재라고 보았는데, 그것은 여성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유혹하기 때문이다. 몸을 가진 여성의 존재 자체가 남성에게는 위협한 것이다. Prudence Allen, 위의 책, p. 234

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이에 반해 사회와 경제가 안정을 얻게 된 중세 성기(盛期)로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사랑과 사랑 표현은 새로운 차원을 획득하였다.

그런 만큼 이 세계에서도 여성은 획일적인 굴욕의 삶을 산 것은 아니다. 물론 여성에게는 겹겹의 굴레가 덮어씌워져 있었다. 여성들이 기본적인 생존이라도 확보하려면 일단은 이 굴레를 받아들여야 하였다. 그러나 이 굴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구체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늘이거나 줄이려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었다. 자기 삶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은 정치의 영역에서이건, 고유한 의미의 남녀 간의 사랑의 영역에서이건, 문필과 학문의 영역에서이건, 행동의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위해 분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벽에 부딪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즉각적인 인정은 받지 못하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자유로운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에서 여성 주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 보아야 한다. 하나는 여성들이 그들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구속을 벗어나, 자유로운 사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성들이 그들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에 관해 살펴볼 때 사랑에 정열적인 여성의 모습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이 죄)> 같은 기사 문학에서도, <카르미나 부라나> 같은 음유시인의 시가집에서도 표현되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여주인공 이졸데는 비록 실수로 미약을 마시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결혼제도의 테두리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남성과 혼외의 사랑을 나누는 능동적이고 대담한 연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음주가무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점철된 분방한 세속적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시집 <카르미나 부라나> 가운데 "빨간 드레스의 소녀가 서 있다"(Stetit puella rufa tunica)는 정열적인 색깔의 옷을 입고도 못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 아가씨의 모습과 그녀의 유혹적 자태에 사로잡힌 젊은 남성의 설레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세속문학 뿐 아니라 성직자들이나 종교적 인물들이 열렬한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쓴 글들도 남녀 간의 강렬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로 씌어진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신비주의 계열의 수녀들이 쓴 글 혹은 수녀에 관해 쓴 글에서 이러한 경향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도 교회의 수사법에서 수녀들은 예수의 신부라 불리었고, 그녀들이 신앙의 무아적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동원하는 수사법은 강렬한 에로스적 정열의 표현 방식을 그대로 빌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들은 환상 속에서 영광스럽고 멋진 남성의 모습을 한 예수와 몸과 마음이 합일하는 경험을 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⁴⁾ 신비주의적인 베긴회 수녀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마그데부르크의 메히트힐트는 신성(神性)과의 합일을 “그대는 나의 가슴을 달콤하게 식혀주고 그대는 나의 입에 와 닿은 내밀한 키스이며.....”라고 표현하였다.⁵⁾ 또한 르 롱스레 수녀원의 젊은 수녀 콩스탕스가 대부이자 후견인인 보드리에게 쓴 시들에서 목격되듯이, 수녀들이 외부인을 위해 쓰는 글들에서조차 이러한 표현법이 사용되었다.⁶⁾ 따라서 후대의 세속 연구자들은 어떤 부분을 종교적 무아경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을 변형된 에로스로 보아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피에르 아벨라르(Pierre Abelard, 1079-1142)와 엘로이즈

4) 거다 러너,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평민사, 1993), 126-127쪽.

5) 마리트 룰만 외, *여성 철학자*, 이 한우 옮김 (푸른 숲, 2005), 117쪽

6) Peter Dronke, *Women Writers of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84-90

(Héloïse, 1101무렵 -1164)의 사랑 이야기는 중세의 양성관계와 섹슈엘리티 문제에서 고정 관념을 넘어서는 데 필요한 모든 담론의 소재를 제공한다. 두 사람의 왕복서한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사랑 이야기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아벨라르가 겪은 비극적 운명 때문에도 널리 회자되었지만 특히 여성인 엘로이즈가 보여주었던 사랑을 위한 용기와 정열적인 사랑 표현을 통해 시대를 넘는 울림을 얻고 있다. 그녀가 내렸던 인생의 선택과 사랑과 결혼의 문제에 대해 표현했던 생각은 기독교 교회가 부과한 도덕률의 테두리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의 사랑은 사람의 감정이 제도적 테두리와는 얼마나 무관한 것인가,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에 각기 부과된 사회적 제약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엘로이즈의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서 여성이 선택과 결정의 주체일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본보기이기도 하다.

이 글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양성관계와 섹슈엘리티에 관한 서양 중세의 지배적 관념이 개인의 삶을 어떻게 구속했는지, 이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쟁하고 타협했는지, 어떤 면에서 승리했고 그럼에도 어떻게 패배했는지, 그 구체적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지의 진위 논란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의 전말은 그가 개인적인 불행을 겪은 어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쓴 <내 고난의 이야기>와 그 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한에 기록되어 있다.⁷⁾ <내 고난의 이야기>는 자서전과도 같은 글로서, 아벨라르는 자기의 성장과정, 학문적 편력과 아울러 두 사람의 사랑의 사연을 비교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전설이요 신화가 되면 되는 만큼, 두 사람의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 왔다. 우선 이들 편지에 대해서는 19세기 초부터 진위 논란이 일기 시작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이 논란은 계속되었다.⁸⁾ 최근에도 존 벤튼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서한들이 위조되었거나 혹은 적어도 엘로이즈가 썼다고 알려진 편지 일부는 실제로는 아벨라르가 쓴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⁹⁾ 반면 에티엔 질송이나 마렌본 같은

7) 아벨라르의 <내 고난의 이야기>와 두 사람의 왕복서한은 모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데 라틴어 원본은 손에 넣지 못하였고 현대 프랑스어 번역, 영어 번역 및 한국어 번역을 이용하였다.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réface d'Étienne Gilson, Édition d'Édouard Bouyé (Gallimard, 2000), Abélard et Héloïse, *Lettres et vies*, Introduction, traduction, notes par Yves Ferroul (GF Flammarion, 1996), *The Letters of Abelard and Heloise* tr. by B. Radice & revised by M. T. Clanchy (Penguin Classics, 2005), 아벨라르·엘로이즈,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정 봉구 옮김(을유문화사, 1999)

8) 엘로이즈-아벨라르 왕복 서한의 진위논란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문헌들을 살펴보려면 John Marenbon, *The Philosophy of Peter Abel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p. 82-93을 참조하십시오. 두 사람의 편지에 바탕을 두고 상상력을 더해 자유롭게 변안한 책들도 있는데, 이는 진위논쟁의 대상은 물론 아니다. 19 세기의 한 영역본은 완전한 번안본은 아닌데, 번역자는 아벨라르의 <내 고난의 이야기>의 수신인을 필립투스라는 인물로 설정하고 있고, 현대어 번역에는 없는 내용을 두 연인 사이의 대화라고 삽입하고 있기도 하다. 아마도, 여러 필사본 가운데 비평본이 아닌 것을 번역 저본으로 사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는 두 연인의 이야기가 그만큼 인기를 끌었음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한다. *Letters of Abrlard & Heloise, With a Particular Account of Their Lives and Misfortunes: To Which Are Added Poems by Pope, Madan, Cawthorne, etc.*(New -York, 1808)

9) John F. Benton, 'Fraud, Fiction and Borrowing in the Correspondence of Abelard and Heloise', in *Pierre Abélard. Pierre le Venerable* (Paris, 1975) 이 논문은 *Culture, Power and personality in Medieval France*, ed. T. N. Bisson (Hambledon Press, 1991)에 "A Reconsideration of the Authenticity of the Correspondence of Abélard and Héloïse"라는 제목으로 다시 수록되었다.

중세 철학 연구의 권위자들은 이 편지들이 진짜임을 확신하였고¹⁰⁾ 피터 드룽크 같은 중세 문학의 전문가 또한 역사적, 지성사의 맥락에서 볼 때 이 편지가 진짜일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데 전공지식과 진심과 열의를 총동원하였다.¹¹⁾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잘 알려진 여덟편의 편지(아벨라르의 <내 고난의 이야기>를 제외하면 일곱 편) 외에 두 사람 간에 오고 간 여러 편이 다른 편지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연구서도 출현하였다.¹²⁾

중세사 전문가 조르주 뒤비는 엘로이즈가 썼다고 하는 편지가 사실은 남자가 쓴 글이었을 가능성에 더 큰 무게를 두는 듯하다. 그리고 이 편지들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편집된 순서로 보아서 서한 편집자(아마도 대중의 종교적 교화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을 그 어떤 이)의 관심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광적인 사랑의 정열로 젊음을 소진한 후 진정한 신앙의 품안에 안기게 된 두 사람의 참회의 기록을 남기는 데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¹³⁾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엘로이즈 또한 결국은 시대의 희생이 되어 사랑에 실패했던 불행한 여인으로 보고 있다.

엘로이즈라는 여성이, 더욱이 수녀라는 신분을 가진 채, 파격적이고도 대담하기 짝이 없는 개인적 욕망의 표현을 포함한 사적 편지를 썼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추측의 근거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같은 추측은, 무릇 모든 인간은 외적 규제가 주어지면 획일적으로 순응하기만 할 뿐 이를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꿈도 꾸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어쩌면 그렇게 판단하는 연구자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같은 자기상을 투사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여성은, 외적 규제와 규율을 넘어 자유로운 꿈과 환상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이다. 서양 중세 여성이라고 해서 이 같은 자유의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으리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 중세 서양은 여성의 글쓰기가 점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여성 필자들인 수녀들의 글쓰기는 힐데가르트 폰 빙겐의 글처럼 전적으로 종교적 내용만을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앞에서 언급한 콩스탕스의 경우처럼 세속적 글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렬한 애정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왕복 서한이 진짜가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한, 이 편지들의 내

10) Étienne Gilson, *Heloise and Abelard*, tr. by L. K. Shook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pp. xii-xiii; 2000년에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펴낸 두 사람의 왕복서한 현대 프랑스어역본은 질송의 이 책 가운데 세 장(章)을 서문으로 이용하고 있다. Étienne Gilson, "Preface", *Abe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Édition d'Édouard Bouyé (Gallimard 2000), pp. 7-54. 마렌본은 위에서 소개한 글에서 두 사람의 왕복서한이 모두 두 사람 자신에 의해 씌어졌으며, 특히 엘로이즈의 편지가 아벨라르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일부 논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Marenbon, *The Philosophy of Peter Abelard* pp. 82-93

11) Peter Dronke, *Abelard and Heloise in Medieval Testimonies* (University of Glasgow, 1976)는 분량은 많지 않지만, 두 사람의 편지가 진본임을 밝히기 위해 중세 문헌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에 바탕을 두고 대단히 정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같은 저자의 책 *Women Writers of the Middle Age*에서도 동일한 목적이 추구되고 있다.

12) 이 '새로 발견된' 편지들이란 1471년 클레르보 수도원의 수도사 요하네스 데 베프리아가 라틴어 문장교범을 만들기 위해 편찬한 서한문 선집에 포함되어 있었던 100여편의 사한이다. 남녀가 주고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편지들이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사이에서 오간 것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을 최초로 출판물에서 제기한 것은 에발트 퀴스겐(Ewald Könsgen, *Epistolae duorum amantium: Briefe Abaelards und Heloises?* Leiden 1974)이었고 최근 뉴질랜드의 연구자 뮤스는 그 가능성을 거의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연구서를 펴냈다. Constant J. Mews, *The Lost Love Letters of Heloise and Abelard*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9)

13) 조르주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1. 알리에노르 다키텐과 다른 6명의 여인들. 최애리 옮김(새물결, 2005), 89-94쪽

용을 신뢰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 설사, 편지들이 가짜라고 하더라도 편지의 필자는 그가 현실에서 관찰했을, 피와 살을 가진 살이 있는 인간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편지에서 표현된 엘로이즈의 모습은 중세 당시를 살았던 한 여인의 생생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사랑의 유희에서 사랑의 비극으로 : 연애담의 표면적 구조

두 사람의 사랑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청춘남녀의 연애사건으로 시작하였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아벨라르는 서른 아홉 살이었고, 엘로이즈는 열 일곱 살 무렵이었다.

유희자는 아벨라르였다.¹⁴⁾ 브르타뉴 지방의 르 팔레 출신인 아벨라르는 젊은 시절부터 지적 재능으로 이름을 떨치다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나던 당시에는 파리 학계에서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던 철학자였다. 파리 대학에서 강의하며 많은 학생의 인기를 모아 “돈이며 명성” 쌓아올린 그는 또한 자신만만하고 격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였다. 그는 그 때까지 학문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여성과 교제한 경험이 별로 없었으며 자신의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¹⁵⁾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마흔의 문턱에 이르러 남성성을 과시하는 한편 인생의 일면인 에로스적 쾌락을 향유해 보고 싶어했다. 학문의 세계에서 충분한 성취감을 맛본 그는 에로스의 세계에서도 정복욕과 성취욕을 충족시키고자 한 것이다. 남성인 그에게는 이것이 하등 문제될 바 없었다.

아벨라르가 유희의 대상으로 택한 이는 미모나 부나 전통적인 여성적 미덕이 뛰어난 여자가 아니라 학식이 뛰어난 젊은 여자였다. 엘로이즈가 재색을 겸비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벨라르는 그녀의 외모에 대해 단지 “얼굴도 밍지 않았다.”(facie non infima)고만 언급하고 있다.¹⁶⁾ 이것이 자신의 불행한 과거에 대해 친구에게 서술하는 글에서 겸손을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벨라르는 그녀가 젊은 여성이면서도 얼마나 학식이 뛰어났고 이 학식으로 전 프랑스에 이름을 떨쳤는가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엘로이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유명한 학자요 능률한 남자인 자기라면 문제없이 그녀를 사로잡으리라 생각했다.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엘로이즈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언제 출생했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¹⁷⁾ 아벨라르와 만날 당시에는 어머니 에르상(혹은 에르생드)의 남자형제인 파리 성당 참사회원 쾰베르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혹자는 쾰베르가 엘로이즈의 교육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은 것을 근거로 엘로이즈가 그의 혼외관계에서 낳은 딸이라 추측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시의 가족 관념이 부모자식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친척들이 부모 못지않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

14)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의 전말은 별개의 표시가 없는 한 아벨라르가 쓴 <내 고난의 이야기>에 따른 것이다.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57-110.

15) 그는 <내 고난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술회하고 있다. “당시 나는 대단한 명성의 소유자였고 빛나는 젊음의 한가운데 있었으며 아주 멋진 풍채를 자랑하던 중이었기에 어떤 여자에게 사랑을 주더라도 거절당할 염려가 조금도 없으리라 자신했다네”,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66.

16) Étienne Gilson, *Heloise and Abelard*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p. 4.

17) 일부 연구자는 엘로이즈가 파리 명문 출신이며 부계로는 몽모랑시-방틀뤼 가문과 연결되어 있으리라고 추정한다.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76 Notes (p.66에 대한 편집자 주 2) 참조. 조르주 뒤비도 그녀가 고위귀족 계급 출신으로, 부계로는 몽모랑시-보몽 가문과 모계로는 샤프트르 주교 대리 가문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르주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1, 73쪽.

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치 않은 것이다. 또한, 쾰베르가 아벨라르의 거세를 명령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가 그녀에게 성적 욕망을 가졌으리라 추론하는 연구자도 있다.¹⁸⁾ 그러나 그가 애초에 아벨라르에게 엘로이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을 강요했던 것을 보면 이 추론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아버지였던 삼촌이었던 쾰베르는 엘로이즈의 교육과 ‘양가 규수’다운 순결 준수에 책임을 지고 있던 가부장적 존재였음에 틀림없다.

엘로이즈가 탁월한 지적 능력의 젊은 여성으로 이름을 떨쳤음은 클뤼니 수도원 원장을 지낸 존자(尊者) 피에르(Pierre le Venerable)가 남긴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학문에 뜻을 두거나 학문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소녀였던 데 반해, 엘로이즈는 아르장퇴이 수녀원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숙제로 나와서 생활하면서도 그 나이 또래의 젊은 아가씨들이 품을 법한 옷치장, 몸치레 관심에 물들지 않은 채 철학과 신학의 연구에 전념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였다.¹⁹⁾

아벨라르는 이러한 엘로이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쾰베르에게 자기를 하숙인으로 받아달라고 제안해 허락을 받았다. 쾰베르는 대학자 아벨라르가 하숙인으로 자기 집에 머무르게 되자 좋은 기회로 여겨 엘로이즈의 교육을 그에게 일임하였다. 아벨라르가 노리던 바였다.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방해받지 않는 ‘수업’을 위해 별채에서 둘이만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성에 무관심하고 학문에만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던 두 남녀는 격렬한 사랑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 사랑은 속으로만 타오르고 겉으로는 억제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런 금기도 느끼지 않은 채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강화되는 사랑이었다. 후일 두 사람은 사랑의 시작단계에서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의 유혹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던가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 이를 보면 엘로이즈는 유혹에 아무런 주저함이나 저항 없이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이 대담한 아가씨는 거리낌 없이 마주 손을 내밀었다. 아벨라르의 손은 “책보다는 더 자주 엘로이즈의 가슴으로” 가게 되었고, 쾰베르의 저택 별채에 따로 공부방을 마련한 두 사람은 밤이면 밤마다 성애의 법열을 누렸다. 아벨라르는 유혹자로서 성적 정복자가 되어 볼 즐거운 기대에 싸여 다소 무책임하게 엘로이즈에게 접근했다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정열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후 펼쳐진 인간 드라마에서 사태전개에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도 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이것저것 되는 대로 시도해 보려고도 하다가 결국 크나큰 비극을 자초하는 인물이 된다.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와 사랑을 나누느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자 말썬이 일어났다. 게다가 엘로이즈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 아벨라르는 사태가 스캔들로 번지기 시작한 초기에는 여성의 유혹적 힘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즉 그가 엘로이즈를 자기 고향 누이의 집에 피신시키고 그 곳에서 아들을 낳게 한 후 파리로 돌아와서 엘로이즈의 삼촌인 쾰베르에게 찾아갔을 때 그는 쾰베르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사랑의 맹렬한 힘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세상이 시작된 이래 여자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까지도 어떤 구렁텅이로 떨어뜨렸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저의 행위를 괴이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²¹⁾ 그는 자기가 유혹한 여성에 대하여 그 여성의 보호자 앞에서까지 중세 기독교 교

18) Betty Radice, "Introduction", *The Letters of Abelard and Heloise* tr. by B. Radice & revised by M. T. Clanchy (Penguin Classics, 2005) p. xx

19) Régine Pernoud, *Heloise und Abaelard. Ein Frauenschicksal im Mittelalter*, übersetzt von C. Barthélemy-Höfer und F. Höfer(dtv, 1994) S. 51-52.

20) 질송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Étienne Gilson, *Heloise and Abelard*, p. 6

회의 부정적 여성관의 핵심인 '성적 유혹자이며 남성을 타락케 하는 위험한 존재로서의 여성'관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아벨라르는 쾰베르에게 사죄하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기는 했으나 자신 때문에 일생이 바뀌게 된 젊은 여인의 운명보다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명성과 앞날을 더 크게 염려하면서 처신하였다. 그는 결혼제안을 무엇보다, 엘로이즈의 삼촌이면서 사실상 가부장권을 행사하고 있던 쾰베르에게 보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했다. 즉 엘로이즈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기가 임신시킨 여성에게 결혼을 해 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며, 여성은 당연히 결혼에 동의할 것이고, 삼촌 쾰베르에게도 기대 이상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삼촌 쾰베르도 엘로이즈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결혼제안에 동의했다. 그런데 아벨라르는 결혼은 결혼이되 자기 명성을 위해 비밀결혼을 제안한 것이다.

비밀결혼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 아벨라르는 학자였다. 학자로서 이미 충분한 명성을 쌓았지만, 학문 세계를 정복하려는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다. 서양 중세에 학문을 한다는 것은 일부 특수한 취향을 가진 왕족이나 대귀족을 제외한다면²²⁾ 사실상 성직자들의 일이었다. 성직자 중에서도 일부 교구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기도 했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학문적으로도 높은 명성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식결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성직자들 중에 죽을 때까지 동정을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성직자들이 비공식적 혼인관계를 영위하거나, 애인을 두고 있었다.²³⁾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클뤼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개혁운동을 전개할 때 중점을 두었던 것도 바로 성직자들의 성적 규율을 강화하려 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쨌건, 가톨릭 교회는 공식적으로는 성적 금욕을 찬양하였고, '제도로서의 결혼'은 '진리의 길'을 추구하여 철학(학문)을 하려는 남자에게는 권장사항은 아닌 것으로 여겨졌다. 특히 아벨라르가 재직하던 파리 학당에는 기혼자가 없었다.²⁴⁾ 그는 공개적 결혼이 어려운 입장에서, 엘로이즈의 가족에게 보상을 하려면 비밀결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 것이다.

엘로이즈는 애초에는 결혼에 반대하였으나 아벨라르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 그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아이를 남겨둔 채 파리로 돌아왔다. 그들의 결혼은 비밀리에 거행되었으나 쾰베르는 두 사람의 결혼을 공개해 버렸다. 아마도 이미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소문이 날대로 난 상황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엘로이즈가 이에 항의하자 쾰베르는 그녀를 학대하기 시작했고 아벨라르는 그녀를 아르장퇴이 수녀원으로 피신시켰다. 그러나 서로 간에 오해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은 사태를 악화시켰을 뿐이다. 엘로이즈의 삼촌은 아벨라르가 마음이 변해 엘로이즈를 수녀로 만듦으로써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자기는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격노한 쾰베르는 사람을 고용하여 아벨라르를 성적으로 거세하라고 청부하였다. 아벨라르의 하인을 비롯한 네 명의 남자는 한밤중, 잠에 빠져 있는 아벨라르를 습격하여 성기를 절단해 버렸다. 그의 상실된 남성성은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수치감에 휩싸인 아벨라르는 수도원으로 도망쳤고 생 드니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다. 남자가 성불능일 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다.²⁵⁾ 일반인 신분으로 수도원에서 살고 있던 엘로이즈도 그의 제안에 따라 수녀가 되었다. 교회가 재혼을 금지하지는 않

21)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70.

22) 왜냐하면 왕족이나 귀족들은 기본적으로 독서인이나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인이었기 때문이다.

23) 마르크 블로크, *봉건 사회 II*, 한 정숙 옮김 (한길사, 2001), 162쪽

24) Prudence Allen, *The Concept of Woman*, p. 287

25) 조르주 뒤비, *중세의 결혼*, 최 애리 옮김(새물결, 2001), 174쪽.

았지만 그와 같은 고난 후 여자 혼자 세속에 남아있는 것도 험난한 일이었을 수는 있다. 여하튼 아벨라르 자신이 그녀에게 수녀가 되라고 권했던 데서 아벨라르의 자기중심적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수도사가 된 후에도 아벨라르는 그의 투쟁적인 기질에 걸맞게 수도사들의 부패와 비리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적대자들의 분노를 사 쫓기는 생활을 하였다. 수아송에서는 그의 책이 교황사절의 명령에 따라 불살라지기도 하였다.

아벨라르는 고난의 생활을 하다가 트르와의 영지에 있는 황무지에 성삼위일체 교회를 세우고 수도생활에 전념하였다. 세상은 학자와 교사로서의 그의 탁월한 능력을 잊지 않았다. 그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주변에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천막을 짓고 살기 시작하였다. 아벨라르는 예배당을 증축하고 이 새로운 믿음의 전당에 '파라클레트'(Paraclete), 곧 '위로를 주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아벨라르는 적대세력의 공격, 문란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견제하려는 그의 노력에서 빚어지는 마찰로 인해 계속되는 괴로움을 겪었기에, 심지어는 기독교 사회를 떠나 회교 사회에 가서 살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엘로이즈가 속한 아르장퇴이 수녀원의 수녀들이 몸담을 곳을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벨라르는 그들을 파라클레트로 불러들이고 이곳을 양도하였다. 이곳은 그들을 위한 수도원으로 개조되었고 엘로이즈는 여성수도자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다.

엘로이즈는 수도원 내에서 표면적으로 기복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아벨라르가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쓴 <내 고난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엘로이즈는 모종의 경로를 통해 이 기록을 입수하여 읽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어 놓았고, 그녀는 아벨라르를 향해 불같은 사랑을 호소하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는 여러 차례 편지가 오가게 되었다.²⁶⁾

쾌락의 대상에서 사랑의 주체로 : 엘로이즈의 선택

두 사람의 사랑이 당사자들의 의지나 정해진 계획에 따라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사태 전개에서 처음부터 자신의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태에 대처하였으며 비극이 발생한 후에도 책임감을 가진 인간으로서 의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엘로이즈였다.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와의 세속적 관계를 영구히 포기해야 했을 때 나이는 불과 열아홉 살 정도였다.

엘로이즈는 학문에 재능이 있고 학문을 좋아할 뿐 아니라 행동이 매우 단정한 젊은 처녀였음에 틀림없다. 삼촌 쾰베르는 독신 남성인 아벨라르의 손에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교육에 관한 전권을 맡겼는데, 이는 그녀가 교육을 받을 동안 남성교사에게 아무런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있을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특이한 비극적 사랑의 이야기로 전화되는 계기는 바로 결혼과 연애에 대한 엘로이즈의 남다른 태도에 있었다. 엘로이즈는 쾰베르의 예상을 뒤엎고 관능의 즐거움에 과감히 몸을 맡겼다. 엘로이즈가 느낀 사랑은 처음에는 그저 낭만적인 것이었다. 그녀는 대학자 아벨라르의 명성과 재능, 남성적 매력에 이끌렸다, 그녀를

26)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주로 이야기되었던 네 편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 혹은 개인적 편지라고 부르며 그 후 수도원의 규율, 신앙의 문제가 주로 이야기되었던 편지들을 교도(敎導)의 편지라고 부른다.

무엇보다 감동시킨 것은 아벨라르가 사랑의 시인이자 음유시인이어서 엘로이즈 자신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며, 이 노래가 방방곡곡에서 불린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기를 선택한 사람,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자부심에 겨워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아내가, 어떤 처녀가 그대가 없는 곳에서는 그대 생각으로 애끊이지 않았을 것이며 그대 앞에서는 포옹하고자 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왕비, 어느 공주가 내 기쁨과 내 잠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²⁷⁾ 그녀는 사랑의 감정에 겨워, 아벨라르의 아이를 가졌다고 그에게 “환희에 찬”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녀는 수녀가 된 후 아벨라르에게 쓴 편지(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의 유명한 구절에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를 사랑하여 세상의 절반을 주면서 결혼하려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아우구스투스의 황후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아벨라르의 “창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²⁸⁾ 그녀는 아벨라르와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갔을 것이며 심지어 앞장서기라도 했으리라는 불같은 걱정을 표현하였다. 그녀와 같은 사랑을 해 본 사람이라면 알리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만이 알리라.

그런데 아벨라르가 결혼을 제안해 왔을 때 그녀는 이를 거절했다. 아벨라르가 비밀결혼을 하고자 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지만, 그녀 또한 결혼을 한사코 원치 않았고, 결혼하더라도 이 사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다. 두 사람의 결혼이 비밀결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이 점도 작용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이유는 아벨라르에게 결혼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아벨라르가 결혼을 비밀로 할 것을 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들을 엘로이즈도 물론 고려하였다. 그녀는 현자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이유를 열거하였다. 무엇보다 결혼생활은 학문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녀가 주로 의존한 것은 그리스도 교회 교부나 신학자들의 논거보다는 오히려 고전 고대의 현자들의 충고였다. 그녀는 결혼을 말렸던 성 히에로니무스를 인용하기는 했지만 그가 주로 거론한 것은 페리파토스, 세네카, 키케로, 소크라테스 등과 같은 기독교 이전 고대 철학자들이었다.²⁹⁾

그러나 결혼의 거부는 아벨라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엘로이즈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우선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을 볼 때, 그녀는 사랑이 없이 외적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것을 매춘과 동일시하였다. 엘로이즈는 아스파시아의 말을 인용하며 이렇게 주장하였다.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듯이, 가난한 이보다 재산 많은 이를 좋아하여 결혼하는 여자, 사람 자체보다 재물을 보고 남편을 구하는 여자는 자기를 파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욕망에 사로잡혀 결혼하는 여자는 보수를 지급받을 가치는 있을지언정 사랑을 받을 가치는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여자는 남편의 사람됨이 아니라 부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고, 단지 기회를 엿보다가 더 돈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몸을 팔려고만 할 게 틀림없으니까요.”³⁰⁾

27)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18.

28)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17.

29)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모두 기독교 이전 고전고대의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지만 그 중에서도 엘로이즈가 이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경과 기독교 교부들의 권위에 더 많이 의존한 아벨라르에 비해 그녀는 고전고대 철학자들을 자주 인용하고 있다.

30)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117.

물론 엘로이즈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 그녀에게 아벨라르는 이상적 남성이었다. 엘로이즈는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부러워했다고 주장하였고 그리고 아벨라르가 불행을 겪은 후에도 “그대 이외에는 아무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고 했다.³¹⁾ 그런데도 그의 아내가 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그것은 바로, 엘로이즈가 아벨라르 자신만을 원한다는 그 사실에 있다.

“아내라는 이름이 더 신성하고 더 견고하게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나는 언제고 연인이라는 이름을 더 감미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그대만 당황스러워 하지 않는다면 첩이라는 명칭이고 창부라는 명칭이고 다 상관없었을 것입니다.”³²⁾

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첩이나 창부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은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녀는 여성적 매저키즘에 사로잡혀 있는가?

엘로이즈는 걱정에 휩싸여 정부(情婦, scortum), 첩(妾, concubina), 창부(娼婦, meretrix)라는 명칭들을 나란히 열거하였다. 정부는 정식부인이 아니되 지속적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을 말하고 이는 첩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다. 질송에 따르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는 첩이라는 존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상대 남성과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여성으로 인정받았다.³³⁾ 그 세 가지 조건은 해당 남성과 여성이 독신일 것, 두 사람이 상대에게 정절을 지킬 것,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아벨라르와 엘로이즈는 이 세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중세에는 많은 성직자들이 첩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볼 때 엘로이즈는 별다른 위험부담을 지지 않고 사실상의 혼인관계인 첩 혹은 정부로서 아벨라르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전혀 파격적인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첩=정부라는 말은 아벨라르에 대한 엘로이즈 자신의 자유롭고도 단호한 사랑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인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용인되고 있었던 데다가, 자기 기득권의 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엘로이즈의 의지적 실존적 결단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인 표현이 창부였다. 이 말은 물론 엄청나다. 그러나 엘로이즈가 다른 남성에게는 전혀 자신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결혼하지 않은 채 오직 아벨라르와 거리낌 없는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표현은 아주 제한되고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엘로이즈의 관심은 무엇보다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사랑의 순수성과 영속성을 지키는 데 있었다. 그녀가 결혼을 마다한 것은 아내의 자리가 사랑의 감정을 둔화시키고 이를 의무의 감정으로 변질시킬 수 있으니 사랑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인의 위치가 더 낫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결혼은 두 사람 모두에게 ‘명예’가 될 게 분명하였다.³⁴⁾ 그녀는 “결혼보다는 사랑을, 예속보다는 자유를” 원하였다.³⁵⁾ 엘로이즈는 그 어떤 법적, 준(準)법적 공식 관계를 통해서도 감정을 구속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하여 부부로서 일상생활을

31)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116.

32)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117.

33) Étienne Gilson, *Heloise and Abelard*, pp. 179-180.

34) Étienne Gilson, *Heloise and Abelard*, p. 31.

35)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17.

함께 하면서 고양된 감정의 정점에서 남루한 현실로 추락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었던 시절 엘로이즈의 나이가 아주 젊었다는 것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열 일곱이라는 여성의 나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기에 너무 젊은 나이는 결코 아니었다. 많은 여성이 이 나이에 결혼하여 어머니가 되었다. 엘로이즈가 결혼을 거부한 것은 현실 속 결혼 생활의 모습을 그녀가 관찰에 의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이를 기르고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는 것이 남편에게 가져다주는 부담, 이렇게 결혼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느끼는 싫증,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두 사람이 부대끼면서 서로에게 줄 상처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용납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 후 일상의 비루함과 남루함 때문에 사랑의 긴장이 떨어지고 사랑 자체가 남루해지는 것을 그녀는 용납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만남이 드물수록 더 좋다”고 하였다.³⁶⁾ 언제나 새롭고, 만날 때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열락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기독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은 사랑의 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녀의 출산을 위한 것이었다. 2세기에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썼다. “기독교도가 선택해야 할 것은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지 않고 완전한 금욕을 지키는 것, 이 둘 중 하나이다.”³⁷⁾ 사랑이 단지 연애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락의 공유를 포함한 남녀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때 정통 기독교 교의에 따르면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것일 뿐 아니라 심지어 대립적이기까지 하였다. 기독교적 결혼의 이상인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은 육체관계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³⁸⁾

엘로이즈야말로 결혼과 사랑은 대립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던 여성이었다. 세속인들 사이에서도 남녀 간의 성애를 장려하지 않는 사회에서 결혼의 기회가 막혀 있던 상층 계급 남성들에게 성적 환상의 대리만족을 주고, 그들의 혈기를 일정하게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허용되고 발전된 것이 궁정풍 사랑이었다.³⁹⁾ 이 사랑 역시 육체적 관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장려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금제(禁制) 속에서 고양되는 감정적 흥분을 즐겨 다루고 있었으므로 많은 경우, 성애 자체보다 성적 판타지의 고취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⁴⁰⁾ 궁정풍 사랑의 전형이자 이상을 그린 문학작품에서 기사 트리스탄은 사랑하는 이졸데(이죄)를 향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에 온 몸이 불타면서도 그녀와 숲에서 함께 밤을 날 때 그녀의 순결을 지켜주기 위해 둘 사이에 칼을 놓고 자리에 눕지 않았던가.⁴¹⁾ 그런데 궁정식 사랑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엘로이즈는 사랑의 감정을 극도로 고양시켰으나 게임으로서의 사랑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렇기에 결혼이라는 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않되 다른 인위적인 규제에도 따르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서만 통제되는

36)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75.

37) 장 루이 플랑드랭, *성의 역사*, 편집부 옮김 (동문선, 1994), 122쪽.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아테나고라스는 기독교도 부부에게 임신 중의 성관계를 피하도록 명하며 “밭에 씨를 뿌린 농부도 수확을 기다린 다음에 비로소 다음 씨앗을 뿌리지 않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부부관계를 순전히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곳.

38) 같은 책, 123쪽.

39) 조르주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2,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유 지정 옮김 (새물결, 2005), 112-113쪽.

40) 마르크 블로크, *봉건 사회 II*, 87-90쪽.

41)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가 위에서 말한 봉건 지배체제의 유지를 위한 영주-기사간 타협의 메카니즘으로서의 궁정풍 사랑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연구도 있다. 왜냐하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은 영주-영주부인-기사의 삼각관계가 유지되는 것에서 벗어나 차츰 두 사람만의 사랑을 자기목적으로 삼아 버리기 때문이다. 김 정희,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II): 궁정적 사랑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제 46집 (2001), 13-14쪽.

사랑을 하고자 한 것이다.

물론 엘로이즈가 결혼과 사랑에 대해 그토록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파리 성당참사회원인 삼촌 쾨베르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상층 계급에 속하는 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즉 그녀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엘로이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노회한 아벨라르에 비해 아무런 예감 없이 사랑에 사로잡힌 젊은 엘로이즈에게 사랑은 순수한 감정의 결정체였지 현실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었고, 수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통로이거나 거쳐 갈 계단이거나 해서도 안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엘로이즈가 단지 순수한 성애의 추구라는 의미에서만 욕망에 충실한 존재는 아니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해 마지않았던 아벨라르는 성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 거세당한 남성들도 생식 능력을 상실한 것일 뿐, 거세가 사춘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여성과의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⁴²⁾ 그는 더 이상 신체적으로 상대 여성의 성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후일 수녀가 되어 있던 엘로이즈는 수도사가 되어 있던 아벨라르에게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여기에서 엘로이즈의 사랑은 관능과 성애의 욕구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벨라르도 엘로이즈도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도 여성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도 전혀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사회에서는 계층의 고하를 막론하고 합법적 결혼에 의하지 않고 태어난 서자의 지위는 대단히 불안정한 것이었다.⁴³⁾ 그런데, 아벨라르도 엘로이즈도 그들의 결혼 문제 논의에서뿐 아니라 두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간 후에 주고 받은 편지에서도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비록 두 사람의 편지에서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결혼을 논의하던 시절에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에게 자녀양육의 짐을 지우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스스로 이 짐을 떠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를 보면 엘로이즈는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온갖 시간과 노력, 비혼모(非婚母)로서 명예스럽지 않은 지위까지 모두 떠맡으려 했던 것 같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 엘로이즈는 온 프랑스에 이미 이름을 날릴 정도로 지적 재능이 뛰어났음에도, 자기의 학문적 성취를 위한 요구는 전혀 내세우지 않았다. 어차피 당시에는 세속의 여성이 학문과 교육활동으로 독자적인 생활을 해 가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일까.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아벨라르가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한다 할지라도 엘로이즈가 비혼모로서 사회적 불명예를 질 수 밖에 없었을 터인데, 엘로이즈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점이야말로 두 사람의 편지가 진본인가를 내용상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법할 정도로, 의아스러운 구석이다. “이 시대 여성은 어머니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진정한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없었다”는 조르주 뒤비의 단언⁴⁴⁾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혼전관계에 의해 갓난아이를 둔 젊은 여성이 직업적·신앙적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인 아이 아버지와의 법적 결혼을 통해 명예로운 어머니

42) Yves Ferroul, "Introduction: Une histoire d'amour hors du commun", Héloïse et Abélard, Lettres et vies (GF Flammarion, Paris, 1996), p. 13.

43) 뒤비는 ‘결혼에 대한 교회의 관념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 외 어떤 형태의 출산도 불법으로 배격당했다’고 쓰고 있다. 후일 잉글랜드의 정복왕 윌리엄이 된 노르망디 공 기욤도 서자라는 그의 위치 때문에 젊은 시절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조르주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2, 116-119쪽.

44) 조르주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2, 54쪽.

가 되고 아이에게도 대학자의 적법한 아들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자격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을 굳이 마다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첩이나 창부라는 명칭도 불사한다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이미 비혼모라는 불명에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엘로이즈가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것처럼, 여자는 결혼하여 남편 집안의 대를 잇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반감이었을 수도 있다. 탁월한 학문적 재능을 가진 여성 엘로이즈는 결혼생활에 매여 어머니로서만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스파시아와 같은 자유로운 삶을 더 바람직하게 여겼다. 아스파시아도 고대 그리스 폴리스 역사상 최고의 엘리트 정치인이었던 페리클레스와 사랑을 나누고 그와의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를 낳지 않았던가.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학문을 위해서, 낭만적 사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이의 어머니가 아닌 개인 엘로이즈 자신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비혼모가 될 것을 자청하였던 것이다.

서양 중세에서 여성이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일정한 권력까지 가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결혼을 하여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다. 성애는 기본적으로 죄악시되었지만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남녀의 성적결합이 불가결하였다. 이를 위해 기독교 교회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용인하였고, 교회의 축성을 거친 혼인 관계 안에서의 남녀의 결합만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혼이 어디까지나 인류의 존속을 위한 것인 만큼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결혼하여 어머니가 됨으로써 확보되는 것이었다. 부부의 침상은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다. 결혼은 또한 여성을 통하여 가족의 재산이 이어진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 토지재산이 가장 중요한 부의 형태였던 서양 중세 사회에서 토지소유자 계급인 귀족층 사이에서는 어머니를 통한 재산상속이 부계를 통한 상속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여성의 결혼은 재산의 상속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⁴⁵⁾

여성이 사회적으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는 수녀가 되는 것이었다. 수녀원 내의 위계서열 속에서 수녀원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은 공인된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또한 서열의 힘을 빌지 않더라도 신앙의 힘으로 세인들을 압도하든지, 기독교 교리의 테두리 내에서 담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여성이 현실 세계에서 왕실의 일원이나 대귀족의 일원으로 권력을 가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사실상 남성의 대리자로서 가지는 권력이었다. 그런데 엘로이즈는 어머니와 아내로서 권력을 가지는 것, 수녀로서 권력을 가지는 것 모두를 마다하였다.

두 사람보다 약간 후대의 인물인 장 드 땡은 기욤 드 로리스의 <장미 이야기>를 보완하면서 여성 편향적인 내용을 대폭 삽입하였는데, 그는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주는 결혼 생활에 관한 조언 속에서 엘로이즈의 결혼 비판론을 인용하고 있다.⁴⁶⁾ 이 발언은 여러 겹의 껍질 속에 싸인 과육과도 같은 중첩 구조를 가지고 있거니와, 엘로이즈 이야기는 사랑에 빠진 남자에게 조언하는 친구(Ami)의 말 속에서 다시 인용되는 폭력적 남편의 말 가운데 등장한다. (그리고 이 친구의 말을 사랑에 빠진 남자가 다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남편의 견해로는 여성은 유혹자이며 남성을 과멸시키는 사악한 존재이므로 남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이면서도 결혼을 극구 마다한 엘로이즈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일단 “이해력이 뛰어나고 교육을 잘 받은 젊은 여성”으로 지칭되었

45) 뒤비, *12세기의 여인들* 2, 52-53쪽

46) Guillaume de Lorris et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Le Livre de Poche, 1995), pp. 524-526.

다. 장 드 뵁은 아벨라르의 <내 고난의 이야기>와 두 연인의 왕복 서한을 최초로 프랑스로 번역한 인물인데,⁴⁷⁾ <장미 이야기>의 중첩적 발언 구조로 볼 때 사실 어디까지가 장 드 뵁 자신의 의견이고 어디까지가 그가 논쟁거리로 소개하는 분분한 의견들 중 하나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다.⁴⁸⁾ 그러나 위에서 말한 부분에 곧 이어 “아우구스투스의 황후가 되기보다 아벨라르의 창부가 되겠다”고 한 엘로이즈의 발언이 소개되면서 이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인 언급이 따르는 것을 보면 엘로이즈와 관련된 부분은 장 드 뵁 자신의 견해를 직접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엘로이즈의 발언이 당대인들에게 던졌던 충격과 과장을 어느 정도나마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장 드 뵁은 엘로이즈의 이 태도는 천성이었지만, 그녀가 학식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하고 있다.⁴⁹⁾ 그러나 여성에 대한 그의 의구심은 결코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던 것 같다. 자신의 글이 '모든 여성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행위에서나 의도에서나 창부'⁵⁰⁾라고 보는 여성혐오론자의 논거를 강화하는 데 동원되었음을 알았다면 엘로이즈는 결코 반가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엘로이즈가 아벨라르의 창부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창부의 개념은 장 드 뵁이 말하고 있는 창부 개념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신앙과 낭만적 사랑의 충돌 : 엘로이즈의 갈등

엘로이즈에게 신앙심은 좌절된 사랑의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양자가 조화를 이루지도 않았다. 서양 중세의 여성지식인으로서 엘로이즈가 적어도 그런 척이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돋보인다.

사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가 거세당하고 둘의 사랑이 좌절된 후 수녀로서 흠 잡을 데 없이 단정한 생활을 하는 듯이 보였다. 그래서 아벨라르도 <내 고난의 이야기>에서 파라클레트에게 온 이후의 엘로이즈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였다.

“주님께서는 여성수도자들의 공동체를 지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 엘로이즈가 만인 앞에 호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셨네. 주교들은 그녀를 딸과 같이 사랑했고, 수도원장들은 자매와 같이, 그리고 일반인들은 어머니와 같이 그녀를 사랑했던 것이네. 모든 이가 한결같이 그녀의 신앙심과 현명함과 비할 데 없이 부드러운 인내심에 감탄했네. 그녀가 모습을 보이는 일이 드물수록, 그녀가 수도실 안에서 침거하며 성스러운 명상과 기도에 전념할수록, 밖의 사람들이 열렬히 그녀를 보고 싶어하고 그녀와의 담화에서 교훈을 얻기를 원할수록, 더욱 그러했던 것이네.”⁵¹⁾

47) 위베르 실베스트르(Hubert Silbestre)라는 벨기에 학자는 1988년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 장 드 뵁이야말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왕복서한의 실제 저자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John Marenbon, *The Philosophy of Peter Abelard*, p. 83.

48) 한 연구자도 <장미 이야기>의 이러한 구조에 주목하면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발언을 장 드 뵁 자신의 의견과 동일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Frances Horgan, "Introduction" *The Romance of the Rose*, translated and edited by F. Horga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xvi

49) Guillaume de Lorris et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p. 528. <장미 이야기>의 한 연구자는 장 드 뵁이 산문판 개작에서 엘로이즈의 창부 발언에 대해 “현명한 여성이 이 같은 발언을 했을 리 없다”고 씩씩으로써 그녀의 발언을 좀 더 중립적인 성격의 것으로 만들고자 시도하였다고 보고 있다. Jillian M. Hill, *The Medieval Debate on Jean de Meung's Roman de la Rose. Morality Versus Art* (The Edwin Mellen Press, 1991), p. 43.

50) Guillaume de Lorris and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p. 546.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양일 뿐이었다. 엘로이즈에게는 신앙심이 아니라 아벨라르와의 사랑이야말로 존재의 이유였다. 그녀는 이 사랑을 위해 고통도 달게 받았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져다 준 열락의 기억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외양과는 달리 수도원의 높은 담장 안에서 오로지 그 황홀한 기억에 둘러싸여 살았다. 그 기억은 신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엘로이즈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로잡고 있었다. 엘로이즈는 적어도 아벨라르에게는 이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마음을 추스릴 것을 원하는 답장을 보내온 아벨라르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나로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누렸던 저 사랑의 환락이 너무나 감미로워 떠올리고 또 떠올려도 싫증이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조차 없습니다. 앞을 향해도 뒤로 돌아도 보이는 것은 이 쾌락이요, 쾌락의 기억은 다시 욕망을 일깨워 대니 둘이 함께 내 눈 앞에 어른거립니다.

그 뿐인가요, 이 환영은 나의 잠 속에까지 파고들어 옵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를 바쳐야 할 시간인 미사 도중에도 그 환락의 육욕적인 환상은 가엾은 내 영혼을 그토록 사로잡아, 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분방한 생각에 빠져 있는 적이 더 많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탄식해야 마땅하거늘, 나는 오히려 상실한 것을 향한 열망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일들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며 그 먼 장소들까지 그대 모습과 함께 내 마음 속에 이토록 깊이 새겨져 있어, 나는 그 때 그 장소, 그 때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일들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⁵²⁾

단정한 행실과 학식, 경건한 태도로 못사람의 존경을 받는 수녀원장이 자기는 미사 시간에 기도보다 남편과의 성애에 대한 기억에 몰두한다는 것을 문자로 남기다니, 대담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다. 엘로이즈는 마지막 지점까지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들추어 보인다. 그녀는 자기가 수녀원에 들어가고 경건한 성직자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자기 내부의 신앙적 요구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벨라르를 위한 것임을 서슴없이 인정하였다.

“사람들은 나의 순결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내가 위선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께서도 아시는 일입니다만, 나는 지금껏 내 삶의 모든 단계에서 신을 노엽게 하는 것보다 아벨라르를 노엽게 하는 것을 언제나 더 두려워 해 왔습니다. 신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욕망보다 아벨라르를 기쁘게 해 드리려는 욕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내가 수녀복을 입은 것은 그대의 한 마디 말 때문이었지, 성스러운 소명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걸 다르고 속 다른 태도는 긴 세월

51)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100-101.

52) 엘로이즈의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138-139

걸쳐 온 세상을 속였듯 그대 또한 속인 것입니다.”⁵³⁾

그녀는 신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그 정열이 온 몸을 불태우고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대 그리스 신화의 알케스티스처럼 사랑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엘로이즈는 결코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어도 제 2서한까지 엘로이즈는 아벨라르가 그녀에게 다시 친밀한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한 자기에게는 신에 대한 믿음도 소용없으며, 그 어떤 영적 구원도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나에겐 신의 노여움을 가라앉힐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이 일지 아니합니다. 그대에게 가해졌던 그 혹독한 치욕⁵⁴⁾을 생각하면 신의 냉혹한 잔인함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육체에 아무리 심한 고행을 가할지라도, 영혼이 여전히 죄 지을 생각을 품고 지난날의 그 때 그 정열로 불타고 있다면 과연 참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⁵⁵⁾

세 번째 편지에서는 어떤가? 엘로이즈의 두 번째 편지를 받은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간곡한 답장을 보내 남편의 죄가 아내의 탄원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부탁하였다. 아벨라르는 아내를 향해 세속적 사랑의 불가능을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남편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는 어질고 착한 아내가 되어 줄 것을 호소하였다.⁵⁶⁾ 그에게는 이제 엘로이즈와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은 아무런 심적 격동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듯하였다. 그는 오히려, 수도사들의 성적 부패를 공격하는 자신에게 적대감을 품고 있던 반대세력의 공격이라는 현실적, 신체적 위협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엘로이즈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엘로이즈는 이제 아벨라르에게 옛 시절의 정다운 태도를 되살려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의 기억에서 벗어나, 당시의 신앙적 기준이 요구하듯이 명백히 참회하고 신의 품에 안겨 안식을 얻겠다는 태도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만, 앞으로는 자기 괴로움을 내놓고 아벨라르에게 호소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이것은 사랑의 열락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태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과는 명백히 다르다. 그녀는 마음 속 깊이 이 기억을 포기하고 싶은 의도 자체가 없는 듯하다.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들끓어 오르려 하는 내 고통을 표현하는 데도, 그대가 부여한 제어의 고삐를 씌웠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기 어렵고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글로 쓸 때에는 표현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비록 내 혀는 말을 억제하지 못할지라도 내 손만은 이를 글로 남기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도 나의 붓처럼 고분고분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⁵⁷⁾

53) 엘로이즈의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139-140

54) 아벨라르가 거세당한 일을 말한다. 아벨라르는 자신의 불행을 학문에 매진하라는 신의 명령으로 여기고 이를 받아들인 반면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거세로 더 이상 사랑을 나누지 못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한다.

55) 엘로이즈의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137-138

56)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127

57) 엘로이즈의 세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68

존경받는 파라클레트 수녀원장 엘로이즈는 남편 아벨라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한다.

“나의 괴로움을 완전히 치유해 주지는 못할망정 얼마간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이는 그대입니다.”⁵⁸⁾

엘로이즈는 앞으로는 괴로움을 글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했을 뿐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다음부터는 엘로이즈의 편지에서는 과거 사랑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엘로이즈는 자기 괴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존재가 신이 아니라, 남편이라는 점도 명시하였던 것이다.

이는 두 사람의 왕복서한을 엘로이즈의 참회와 회개 과정의 기록이라 여기는 논자들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사실, 엘로이즈를 사랑의 욕망에 불타다가 이를 넘어서서 신의 품에 안긴 성녀로 보려는 시도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기독교 관념과 문헌에서 이러한 여인의 예는 자주 찾아 볼 수 있다. 그 최초의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본보기는 막달라 마리아이다. 그리고 못 남성을 매혹했을 뿐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의 수사 파프누티우스도 유혹하고자 했지만 끝내 스스로 육체적 욕망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여인이 되어 죽은 매춘녀 타이스의 이야기도 이러한 예이다. 엘로이즈도 서한에서 옛 사랑의 기억과 욕망에 대한 집착을 토로하면서도, 그러한 자기를 가엾은 영혼이라 일컬고 있고 자기 삶이 위선적인 것이라 평하고 있어서, 자기 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자의식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에서는 그녀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기억을 후회하고 이를 죄로 여기며 신앙에 의지하여 이를 넘어섰다고 하는 승리 선언은 끝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회개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의 평정을 얻기 위해 발설을 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 엘로이즈는 사랑의 욕망에 관한 한 회개하는 여인이 아니라 침묵하는 여인이 되었을 뿐이다. 아벨라르와의 세속적 사랑은 이제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였으므로, 그녀는 현실적으로 수녀원의 규칙에 관한 서한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이 교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차선의 만족을 찾게 된 것이다.

엘로이즈가 자기 사랑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죄지은 바 없다는 의식에서 비롯된다. 엘로이즈는 아담, 삼손, 솔로몬 등 ‘여성으로 인해 파멸에 이른 위대한 남성들’의 예들을 들며 아벨라르의 불행을 슬퍼하였다.⁵⁹⁾ 그리고 아벨라르의 재난이 자기와 그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유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죄를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물론 내게도 많은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대도 아시다시피 나는 정말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행위에 있지 않고 의도에 있기 때문입니다.”⁶⁰⁾

엘로이즈가 죄는 내적 동기에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벨라르의 도덕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⁶¹⁾ 그런데 아벨라르의 불행은 엘로이즈의 의도나 동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초래된 것이었다. 엘로이즈는 그의 불행은 적들의 사악한 증오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기가 그

58) 엘로이즈의 세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68

59) 엘로이즈의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36.

60) 엘로이즈의 첫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19.

61) Peter Dronke, *Women Writers of the Middle Ages*, p. 118.

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 도대체 왜 참회를 할 것인가. 비록 그녀는 아벨라르의 불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기는 했지만” 결코 죄스럽지 않은 사랑의 기억만은 남아 있는 것이고, 그녀는 그 기억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를 말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외적 태도로서 그 기억에 대해 침묵할 것만을 약속하는 그녀의 편지글은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벨라르도 엘로이즈가 사랑의 열락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않는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년의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스트롤라브를 위해 쓴 교훈시(Carmen ad Astralabium)에서 엘로이즈는 진정으로 신에 대한 믿음에 귀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의 사랑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엘로이즈의 하소연에 담긴 짐이었네.
독백인 양 호소하며 그 여인 내게 자주 말했네.
“지난 날 저지른 일 회개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렇담 내겐 희망이 없군요.
우리 누렸던 그 즐거움 지금도 그토록 감미로워
비길 데 없는 그 열락 지나갔어도 기억만은 내 맘의 시름을 덜어주니.⁶²⁾

유혹자에서 금욕의 설교자로: 아벨라르의 강요된 전향

‘가장 탁월한 증세철학자 가운데 하나’인 아벨라르는 사랑의 문제에서는 엘로이즈에 비해 능동성과 주체성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는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만 대담하고 적극적인 유혹자였을 뿐 일단 엘로이즈와 상호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수동적이고 상황에 종속되는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었다. 그것은 그가 엘로이즈를 일시적인 쾌락의 대상으로 여겼다가 그녀와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된 데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그런데 이는 그가 여성의 인격적 주체성에 대해 미리 확고한 태도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거세 자체도 따지고 보면 엘로이즈와의 사랑 및 결혼 문제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일관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벌을 받았다는 쓰디쓴 심정토로를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애초에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접근한 것이 자기의 남성성에 대한 자신감에서였던 것은 이미 말한 대로이지만, 두 사람 중에서도 육체적 성애 자체에 더 강렬하게 몰두한 것은 남성인 아벨라르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벨라르는 금욕을 권장하는 예수 수난일을 비롯한 종교적 재계(齋戒)기간에조차 거리낌 없이 성애에 몰두하였으며,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정된 후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기 위해 내키지 않아하는 엘로이즈에게 폭력(위협과 매질)을 쓰기까지 하였다. 쾰베르가 엘로이즈의 학업 진전을 위해서는 체벌을 가해도 좋다고 아벨라르에게 허용해 주기까지 했던 만큼 다소간의 폭력 사용은 아무 문제도 야기하지 않았다. 그 자신이 고백하듯, 아벨라르는 “신과 자신을 잊을” 정도로 “순전히 욕망의 불길

62) Peter Dronke, *Abelard and Heloise in Medieval Testimonies* (University of Glasgow, 1976), p.15에서 재인용.

에 사로잡혀” 엘로이즈에게 탐닉했다.⁶³⁾

이렇듯 철저한 남성성의 신봉자인 아벨라르였던 만큼 그가 강제로 거세당한 후 겪은 마음의 고통은 타인에게는 추체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가 사건 직후 육체적 고통 속에서 가지게 된 가장 강렬한 느낌은 수치심이었다. 그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타인과 이런저런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한 기질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가 타인의 비웃음이나 동정의 대신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사건 후 날이 밝은 다음 소문을 들은 파리 시내 사람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는 것이나 학생들이 울부짖으며 동정하는 것이나 모두 그에게는 끔찍이도 부끄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보다 근원적인 고통은 신학적인 데 있었다. 유대의 전통에서는 ‘고자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다.⁶⁴⁾ 아벨라르도 엘로이즈도 모두 고전고대의 문학과 문화에 매혹되어 있었고 그들의 많은 글에서 그리스 고전의 권위를 불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생일대의 수치를 당한 순간에 아벨라르가 가장 먼저 상기한 것은 섹슈엘리티에 대해 엄격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서도 성적 능력을 거세당한 남성에게 대한 부정적 관념이었다. 그는 아마 잠시나마 자기혐오에 빠질 만한 모든 이유를 가졌을 것이다. 그가 신체적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 드니 수도원으로 피신한 것은 바로 정신적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었다. 거세를 당한 남자에게는 이제 이 같은 고통을 넘어서 수 있는 심리적 기제가 절실히 필요했다.

아벨라르에게서 이 심리적 기제는 개인적 차원에서 사고의 전복을 감행하여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일종의 정화과정으로 여기고, 자신의 현재 처지를 행복(享福)으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여 작동하였다. 이 기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그에게 그러한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두 사람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현재의 삶을 오히려 진정한 신의 뜻에 따르는 것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이제 성욕을 상징하는 부분인 성기를 “신체에서 가장 사악한 부분”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라 부르게 되었다.⁶⁵⁾ 이를 제거당한 것은 신의 은총이었다. 그가 당한 거세는 과거의 추악한 삶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형벌이요, 이 형벌을 받은 후의 삶은 거룩하고 정화된 삶으로 전환되었다. 그의 삶은 그의 내면에서 죄와 벌, 속죄와 구원의 드라마로 재구성된다.

섹슈엘리티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장미 이야기>의 작가 장 드 땡은 남성이 내적 구원과 학문을 위해 거세하는 일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그는 그리스 철학자였던 오리게네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⁶⁶⁾ 오리게네스는 ‘신성한 학문’에 전념하기 위해 스스로 거세한 인물이었다. 실제로 아벨라르 자신도 거세당한 후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오리게네스를 떠올렸으며, 그의 사례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 아벨라르는 거세당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자신의 남성적 능력에 집착하기까지 하던 인물이었으나, 강제로 거세당하고 난 후에는 스스로 또 하나의 오리게네스가 되고자 하였다.⁶⁷⁾

그렇기 때문에 아벨라르는 사랑의 기억에 대한 태도에서 엘로이즈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엘로이즈가 그들이 함께 나눈 사랑의 황홀한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데 반해 아벨라르는 이를 아주 냉정한 어조로 폄하하였다.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것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저질렀던 옛날의 그 욕된 짓들과 여러 가

63)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56.

64)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77.

65)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57

66) Guillaume de Lorris and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p. 984-986.

67) "Histoire des malheures d'Abélard adressée à un ami",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79.

지 난잡한 행위들”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는 자기가 엘로이즈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것을 거론하였고, 결혼 후 아르장퇴이 수녀원에 피신해 있던 엘로이즈를 찾아간 그가 욕망을 이기지 못해 장소를 찾지 못하자 수녀원 식당 한 구석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일을 상기하였다. 참회하는 수도사 아벨라르가 돌이켜 볼 때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바쳐진 신성한 장소에 대한 존중심으로도 억제하지 못하고 만 우리의 음란한 추행”이었다.⁶⁸⁾ 그는 나아가 자기가 쾰베르에게서 엘로이즈를 때놓은 것은 쾰베르를 배신한 것이라고 회한에 찬 어조로 말하였다. 이러한 난잡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고 자기는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거세당한 남자의 냉철한 생존논리는 두 사람의 과거의 사랑을 야멸차게 부정하는 것이었다. 엘로이즈를 유혹하여 생의 격랑으로 몰아넣었던 아벨라르는 이제 그 유혹과 그 사랑은 죄악이었노라 선언하여 엘로이즈를 그 격랑이 물고 온 정신의 격랑에서 대피시키고자 하였다. 엘로이즈에게 주는 그의 충고는 한 마디로, 미련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이는 엘로이즈를 위한 길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아벨라르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었다.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에게 “끊임없는 하소연”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⁶⁹⁾ “나는 당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해진 폭력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요”라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남자였다.⁷⁰⁾ 모든 정황을 볼 때 그의 말은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엘로이즈의 유혹자였던 아벨라르는 엘로이즈의 사랑의 편지에 현명한 교화자의 태도로 답함으로써 엘로이즈를 그 유혹의 기억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이끈 인도자로 여겨지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실제로 두 사람의 왕복서한은 세속적 사랑의 길에서 해매고 있는 젊은 여성과 이를 이미 초월하여 진정한 종교적 헌신의 길로 이 여성을 인도하는 나이든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이 보인다. 이 목적을 위해 아벨라르는 편지에서 엘로이즈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두기도 하였으며, 이를 의아하게 여기는 엘로이즈를 향해, 그녀는 주님의 아내이므로 자기보다 높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⁷¹⁾ 엘로이즈를 종교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시 말해 현실적 요구의 좌절을 통보하고 그녀를 철저히 종교적인 인물로 만들기 위해 처음으로 그는 엘로이즈를 자기보다 높이 올려 세웠던 것이다.

그렇기에 기독교적 남성중심적 해석자들은 바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두 사람의 편지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일관된 주제 의식, 즉 성적으로 타락했던 인간들이 합당한 벌을 받고 정화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위작일 것이라고 해석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위작이 아니고 두 사람의 진필이라고 상정하고 다른 눈으로 보았을 때 이는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참회한 탕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한 남성의 변함없는 자기중심주의의 표현일 수도 있다. 자기 욕망에 따라 성애의 길로 엘로이즈를 끌고 들어갔던 아벨라르는 왜 자기의 성적 좌절을 이유로 엘로이즈에게도 동일한 성적 금욕을 강요하려 들었는가? 거세당한 남편 아벨라르는 생생한 옛 사랑의 기억을 되살리는 아내 엘로이즈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 두 사람을 모두 죄 속으로 몰아넣었던 나의 사랑은 정욕이었소. 사랑이라

68)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54.

69)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53.

70)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63.

71)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44.

부를 수조차 없는 것이었소. 나는 당신에게서 내 가련한 정념의 충족을 만끽했던 것이요.⁷²⁾

엘로이즈는 여전히 성적 욕망이 충분히 남아 있는 스무 살도 채 되지 않은 젊디젊은 여성이었는데, 왜 아벨라르는 그녀에게 세속에서 다른 사랑의 기회를 찾을 가능성을 남겨두려 하지 않았는가? 아벨라르를 향한 엘로이즈의 완강한 정열을 볼 때 그녀 자신이 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아벨라르 자신이 다시 혼계를 하며 그녀를 수녀원 담장 안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데 중세 서양의 남편은 아내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었다. 엘로이즈는 결국 이 엄혹한 사회적 강제 앞에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아벨라르는 자기 혼자만 수도자가 되지 않고 엘로이즈까지 수녀가 된 것은 두 사람이 미리 혼인관계를 맺어둔 덕분이라고까지 생각하였고 엘로이즈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요구하였다.

만약 우리가 혼인관계로 결합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족의 권유나 육체적 쾌락에 대한 배려 때문에 분명히 속세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요.⁷³⁾

아벨라르는 여성을 이브와 마리아로 양분하였다. 성애의 주체로서의 여성, 곧 이브는 사악한 존재이다. “여자들은 현자들까지도 배교하게 한다.”⁷⁴⁾ 이 여성은 자연 그대로의 여성이다. 반면 성애에 대한 정열을 극복한 여성은 신의 은총을 받은 여성, 마리아와 같은 여성이고, 결코 남성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 아벨라르가 수녀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위한 운영지침을 내려 주게 된 것도 신앙 안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 힘을 충분히 신뢰했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종교적 은총을 누릴 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남성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라설 수도 있다. 그는 자기와의 불행한 사랑의 기억으로 울부짖고 있는 엘로이즈를 향해 “지금 못 남성들 위에 서 있는 당신, 이브의 저주를 마리아의 축복으로 바꾸고 있는 당신”이라고 불렀다.⁷⁵⁾

아벨라르는 자기가 더 이상 엘로이즈를 성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고 해서 엘로이즈도 더 이상 섹슈얼리티의 요구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고 이를 종교적 가르침의 이름으로 그녀에게 강요했다. 그는 자신의 성적 능력이 왕성할 때는 이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엘로이즈를 유혹했다. 그러나 성적 능력이 없어지자 그는 성에 대해 철저하게 중세적인 관념으로 자신을 위로하면서 이를 고수하게 되었고 이를 엘로이즈에게도 강요할 뿐 아니라 양성관계 전체에 대해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아벨라르가 중세적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의 종교적 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여성에 대한 부정일변도의 사고방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종교생활이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수용되었기 때문에 여성도 독자적 수도원을 가질 수 있고 여성 수녀원장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⁷⁶⁾ “어진 아내로서”, “신앙인으

72)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162-163.

73)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 159.

74) 같은 곳

75) 같은 곳.

76) 엘로이즈에게 보내는 아벨라르의 세 번째 편지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동등하게 수도생활에 헌신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p. 193-247.

로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다.⁷⁷⁾ 하긴 당시 상황에서, 수녀가 된 엘로이즈에게 그가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 외에 달리 줄 수 있는 도움이 없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신앙에 의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우월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아벨라르에 비해 엘로이즈는 여성은 선천적으로 더 열등하고 약한 존재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여자여서 약한 존재인 자기가 남자이고 강한 존재인 아벨라르에게 순종하는 듯한 외양을 취했다.

그러나 엘로이즈는 사랑의 패배자로 무력하게 물러선 것은 아니었다. 서양 중세가 만들어 낸 모성숭배는 여성을 무성(無性)적 존재로 만들고자 하였다. 금욕주의는 남성의 성도 억압하였다. 성직자의 금욕, 결혼 금지령은 그 산물이었다. 아벨라르는 그 같은 억압구조의 희생이었다. 이 억압구조에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사랑에 더 충실하고자 하였고 이를 지켜내려고 한 것은 여성인 엘로이즈였다. 그녀는 자기 사랑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고 아벨라르에게도 사랑에 충실할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녀는 아벨라르의 남성중심주의를 수용하는 듯이 보였으나 편지를 통해 자신의 사랑과 자신의 삶에 책임지며, 아벨라르에게도 책임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신적으로는 그의 남성중심주의를 무너뜨렸다.

한 연구자는 아벨라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아벨라르의 주요 저작 중 다수가 극히 최근까지도 제대로 편집 출판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반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의 왕복 서한은 수없이 여러 차례 근대어로 번역되고 되었다는 점이다.⁷⁸⁾ 이 난해한 철학의 대가가 적어도 사후 800년 동안이나 -철학자들 뿐 아니라 - 수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관심을 끄는 것은 엘로이즈와의 사랑에 얽힌 비극 및 왕복 서한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사후 이장과 합장을 거듭했던 두 사람의 무덤이 수많은 연인들의 순례지가 끌게 되었던⁷⁹⁾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아벨라르가 아니라 엘로이즈가 사랑의 서한에서 주도적인 인물이었음을 생각한다면 아벨라르는 그의 대중적 명성을 엘로이즈에게 빚지고 있음이 틀림없다.

어떤 사랑의 역사도 상투적이지 않다.

남성 권력자들이 세계관의 형성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의 형성방식 뿐 아니라, 이를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까지 은연중에 그들이 정해 놓은 방식을 따르게 된다. 사랑의 느낌을 품고, 연애하고, 이를 표현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도 예외가 아니다. 담론의 지배자들은 인간이 사랑의 감정을 통제하고 표현하는 방식을 교훈서에서도 손가락으로 일일이 지정하지만, 일상 속에 스며드는 문학, 음악, 미술 작품들을 통해서도 이를 은연중에 침투시킨다. 구애하는 방식, 연인의 사랑표현에 감동하는 방식,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방식, 등 모두가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 담론의 지배자가 남성 권력자, 남성 지식인들이던 시절에는 이러한 방식도 당연히 남성들이 정해놓은 것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서사시의 어떤 부분이 낭송될 때 가장 낫날이 찡함을 느껴야 하는지, 기사가 주군의 부인에게 애타는 사랑을 호소할 때 감성의 가장 내밀한 부분이 어떻게 꿈틀거리야 하는지, 사실은 이러한 것도 외부에서 끊임없이 주입된 규범에 따라 내면화되는 것이다. 양성관계와 섹슈엘리

77) 그는 엘로이즈에게 어진 아내로서 남편인 자기의 구원을 위해 탄원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78) Lyndon Orr, "Famous Affinities of History", 인터넷 자료
<http://authorama.com/famous-affinities-of-history-i-2.html>

79) Peggy Kamuf, *Fictions of Feminine Desire. Disclosures of Helois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2), pp. xi-xii.

티에 대한 태도야말로 가장 일찍부터 엘리아스식 “문명화 과정”속에 들어와 규제되고 방향지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시대, 사회마다 변하기는 했지만, 이를 규정하고 방향 짓는 주체가 남성 담론지배자였다는 사실은 거의 변함없었다.

정형화되고 도식적인 서양 중세 사회의 전체상 속에서,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규범화된 양성관계와 섹슈엘리티 통제체계 속에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 이야기는 일견 대단히 비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엘로이즈는 당대의 남성지배자들이 마련해 놓은 사랑의 규범에 도무지 순응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처녀의 몸으로 후견인의 감시의 눈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사랑하였고, 결혼을 거부하며 자유연애를 택하고자 하였다. 외부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아벨라르와의 사랑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에도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남성에게 모든 주도권을 넘겨주고 수동적으로 그의 명령에 따르는 여성이 아니라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 들었고 이를 위해 스스로는 비혼모가 되고 아들은 사생아의 지위로 만들어 버리는 것도 불사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아벨라르의 태도는 전형적인 자기중심적 중세적 남성지식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한참 연장자로서 나이 어린 처녀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골랐고, 그녀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진 다음 자기의 모호한 태도 때문에 오해를 사서 거세라는 극단적 보복을 당했으며 그 후에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내적 평화를 더 중시하여 엘로이즈에게도 모든 단계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연장자이자 남편으로서 권위를 행사하려 들었다. 다만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처지에서 그녀를 종교적으로 설득할 필요를 느꼈을 때 그녀를 자기 위에 있는 존재라고 불렀을 뿐이다. 아벨라르는 젠더와 섹슈엘리티의 문제에서 철저히 중세적인 인간으로 머물렀다. 서양 중세가 사람을 가두어 두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가 그리한 것이었다. 여성이 부자유스러웠던 것은 남성도 부자유스러웠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에 사랑의 표현에서 중세적인 규범을 별로 개의치 않은 엘로이즈는 매우 특이한 여성으로 이야기된다. 그녀의 사랑은 낭만적 사랑의 극치로 이야기되고 사랑을 위한 그녀의 용기는 많은 후대인들의 찬탄을 낳았다. 페트라르카가 그녀를 찬미했고 프랑수아 비용이, 알렉산더 포프가 그녀를 위해 시를 지었으며, 장자크 루소가 그녀의 정신을 기리는 소설을 썼다. 오늘날에도 엘로이즈가 여전히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진부해질 대로 진부해져버린 낭만적 사랑의 개념을 꺼안고 흐느끼고자 하는 감정몰입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얼마나 지배적 관념의 제약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표본을 그녀 속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그녀는 중세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였을까?

서양 중세는 인간과 인간의 복종과 보호의 의존관계의 연쇄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였음에 틀림 없지만, 지난 시절 중세사 연구의 대가였던 드 울프(De Wulf)는 “봉건시대의 감정은 탁월할 정도로..... 개별 인간의 가치와 존엄의 감정이었다. 봉건 시대의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았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자신 속에서 구하였다.”고 쓴 바 있다.⁸⁰⁾ 그렇다면 엘로이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자유로운 개인의 한 대표였을 수도 있다. 다만 그녀는 글로써 자신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중세 여성으로서는 예외적인

80) Ralph Adams Cram, "Introduction", *The Story of My Misfortunes. The Autobiography of Peter Aéblard*, translated by H. A. Bellows & introduction by Cram (The Macmillan Company, 1922), p. III.

존재였다. 많은 중세 여성들이 엘로이즈처럼 사랑을 향한 적극성과 용기와 책임감, 성적 결정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이를 글로써 표현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서의 태도를 인지하더라도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중세의 기독교적 남성지식인들은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여성들은 성적으로 유혹적이고 사악한 존재라는 일반론만을 폄하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 뿐이지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엘로이즈는 많은 동시대의 그녀의 자매들을 대표하는 여성이었고, 단지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만 예외적인 인물인지도 모른다. 서양 중세는 어쩌면 다른 엘로이즈들도 품 안에 품고 있던, 겉보기보다 훨씬 다채로운 삶을 허용하고 있던 사회인지도 모른다.

주제어: 엘로이즈와 아벨라르, 서양 중세의 여성관, 여성 주체, 금욕주의, 남성의 거세
key word: Heloise and Abelard, image of woman in the medieval West, woman subject, asceticism, castration of man

참고문헌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왕복 서한

- 아벨라르·엘로이즈,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정 봉구 옮김 (을유문화사, 1999), 237쪽
Abélard et Héloïse, *Correspondance*, Préface d'Étienne Gilson, Édition d'Édouard Bouyé (Gallimard, 2000), 444쪽
Abélard et Héloïse, *Lettres et vies*, Introduction, traduction, notes par Yves Ferroul (GF Flammarion, 1996), 218쪽
Letters of Abélard & Heloise, With a Particular Account of Their Lives and Misfortunes: To Which Are Added Poems by Pope, Madan, Cawthorne, etc.(New -York, 1808), 175쪽.
The Letters of Abelard and Heloise translated by B. Radice & revised by M. T. Clanchy (Penguin Classics, 2005), 296쪽.
The Story of My Misfortunes. The Autobiography of Peter Aélbard, translated by H. A. Bellows & introduction by Cram (The Macmillan Company, 1922), 96쪽.

관련 저자들의 저서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고백*, 윤 성범 역(을유문화사, 1995), 452쪽.
Guillaume de Lorris, Jean de Meun, *Le Roman de la Rose*, (Le Livre de Poche, 1995), 1272쪽.
Guillaume de Lorris, Jean de Meun, *The Romance of the Rose*, translated and edited by F. Horgan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350쪽.

2차 자료

- 김 정희, “아더왕 신화의 형성과 해체(II): 긍정적 사랑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 연구* 제 46집

- (2001), 32쪽.
- 뒤비, 조르주, *12세기의 여인들 1. 알리에노르 다키텐과 다른 6명의 여인들*. 최애리 옮김(새물결, 2005), 195쪽.
- 뒤비, 조르주, *12세기의 여인들 2.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유치정 옮김 (새물결, 2005), 224쪽.
- 뒤비, 조르주, *중세의 결혼*, 최 애리 옮김(새물결, 2001), 356쪽.
- 러너, 거다,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김 인성 옮김 (평민사, 1993), 449쪽.
- 롤만, 마리트 외, *여성 철학자*, 이 한우 옮김 (푸른 숲, 2005), 831쪽.
- 블록, 마르크, *봉건사회 I, II*, 한 정숙 옮김(한길사, 2001), 669, 398쪽.
- 플랑드랭, 장 루이, *성의 역사*, 편집부 옮김 (동문선, 1994), 459쪽.
- Allen, Prudence, *The Concept of Woman. The Aristotelian Revolution, 750 B.C.- A.D. 1250*. 2-nd Ed. (Michigan/Cambridge U.K., 1997), 583쪽.
- Dronke, Peter, *Women Writers of the Middle Ag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338쪽
- Dronke, Peter, *Abelard and Heloise in Medieval Testimonies* (University of Glasgow, 1976), 61쪽
- Gilson, Étienne, *Heloise and Abelard*, tr. by L. K. Shook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194쪽.
- Hill, Jillian M., *The Medieval Debate on Jean de Meung's Roman de la Rose. Morality Versus Art* (The Edwin Mellen Press, 1991), 260쪽.
- Kamuf, Peggy, *Fictions of Feminine Desire. Disclosures of Helois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82), 170쪽.
- Marenbon, John, *The Philosophy of Peter Abela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373쪽.
- Mews, Constant J., *The Lost Love Letters of Heloise and Abelard* (St. Martin's Press, New York, 1999), 378 쪽.
- Pernoud, Régine, *Heloise und Abaelard. Ein Frauenschicksal im Mittelalter*, übersetzt von C. Barthélemy-Höfer und F. Höfer (dtv, 1994), 280쪽.

<abstract>

A medieval woman capable of jouissance and tragic activeness in love: Heloise

Gender/sex relation in Western Europe during the Middle Age was dominated by man/woman hierarchy based on Aristotelian biological dichotomy and ascetic male-centrism as preached by the Christian Church. Woman was either praised as Maria, the sexless mother, or condemned as Eve, the evil seducer of man. One can easily have the impression that women in this society had to hide their feminine desire and feeling in regard to love and sexuality behind this mystified images. In this essay I wanted to show that it was not always the case.

The correspondence between Abelard and Heloise in the first half of the twelfth century contains one of the most famous love stories in Europe. In the beginning the seducer was the man, Abelard not the woman, Heloise. The seduction was done not for love but for demonstration and self-proof of male sexual ability. But the seducer and the seduced fell soon in real love. The following story is well known. The wrath of Heloise' uncle, Fulbert, and continued conflicts between him and Abelard led, despite marriage of Heloise and Abelard, to the latter's castration, Wife and Husband became monk and nun.

In this tragedy the female partner, Heloise was more active, courageous, self-conscious and upright to her love. In the beginning she was only an object of male desire but she became the subject of real mutual love. She changed the banal seduction story into a heroic love tragedy. In a society where sexual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was recognized only within the boundary of legal marriage, her original choice was love for love, not the status of spouse. It was both for Abelard and for herself. She wanted to love according to her own will, not to social rule and control. Though she was forced to accept the marriage with Abelard, it could not prevent the castration of her husband. After she became nun according to Abelard's urge, she never regretted or negated her love. She remembered her love with joy and did not condemn it as sin. She did not evade the whole tragedy of her love but embraced it nobly. Most of all she was honest to her love. She was sure that her love was innocent.

Abelard's attitude was different. He was more egocentric in every phase of the love story. For him what Heloise' felt and wanted was not important. Even his proposal to marry Heloise was given as compensation for her uncle, not as a way to please her. Though he himself was the seducer he never forgot criticising female sexual attractiveness as cause of men's fall. After his castration, he made his youthful wife a nun, regardless of her intention. And then he condemned their past love as sinful misdeed. It was his psychological emergency exit because he could, as a sexually impotent man, survive only by justifying his own present lot and by

negating sexuality. In the letters to Heloise he concentrated therefore his effort to give Heloise moralizing lectures and tried to make her a kind of 'repentant seductress' devoted to religious life, though she was never a seductress.

Heloise accepted his 'directions' and silenced thereafter about their worldly love. Because she still loved Abelard and wanted to please him. But the female autonomous will and ability of jouissance she expressed in her letters prove that women were not always passive "other" but could be active subject in gender/sex relation even in the middle age

K C I